

‘판타지’ 소설과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 현 호(백석대)

최근 ‘판타지’(fantasy) 소설이 유행인데, 학생들이 주로 읽는 책이 ‘판타지’라고 한다. 작년에 출간된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은 전 세계에서 2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읽혀졌으며 우리나라 서점가에서도 한동안 베스트셀러 목록 윗자리를 자리잡고 있었다. 독자가 어린 아이에서 90세의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독자가 약 1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20세기 ‘판타지’ 소설의 으뜸이라 일컫는 『반지의 제왕』도 영화의 성행으로 다시 서점가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디즈니에서 기획적으로 영화로 제작하고 있는 『나니아연대기』도 다시 읽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이외에도 많은 ‘판타지’ 소설들이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 서점에서도 눈에 띄는 곳에 진열되어 있다. ‘판타지’ 소설은 픽션으로서 읽혀지고 있는 문학작품의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출판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판타지’ 작품들이 각광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서구적 이성이 지배해온 상황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태껏 ‘판타지’(환상)는 이성에 비해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규정받고 배척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환상이 사라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을 따름이다. ‘판타지’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영상시대에 앞으로 더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판타지들을 다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서구 모방 일변도로 나가거나 피이하고 잔인함만을 추구하는 ‘판타지’는 읽기를 권장할 만큼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대중적인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판타지’ 문학에 대해 논의할 때 불가피하게 두 가지 부정적 관점이 개입된다. 그것은 ‘판타지’ 문학이 ‘도피주의’ 성향을 띠고 있으며 ‘저급문학’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판타지’ 문학에 대한 심각한 오해는 ‘판타지’ 문학을 아동문학과 연관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판타지 문학의 ‘환상적 동기’를 지극히 개인적인 즐거움의 영역으로 비현실적 세계에 대한 개인의 유희적 탐구로 간주하거나 ‘판타지’ 문학의 지나치게 정형화 된 구조를 비판하는 데서 온다. 그리스도인들이 ‘판타지’ 문학을 조심해야 하는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 외부 세계는 하나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등을 돌리고 상상력이 꾸며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며 경박한 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판타지’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판타지’ 문학은 다른 어떤 문학 장르보다 자유롭고 허구적인 세계의 설정이 허용되는 장르이다. ‘판타지’ 문학에서의 환상적 인물과 시간과, 공간과 사건들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다. 이러한 자아의 활동 중에서 모든 주어진 것을 넘어서려는 상상력이 산출된다. 이에 근거해 볼 때 환상은 이성에 의하여 제한된 자아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능력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만드는 믿음의 역할과 유사하다.

우리 마음과 상상력은 건전하게 이용될 수도 있고 타락되게 이용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좋은 환상을 할 수도 있고 나쁜 환상을 할 수도 있다. 양쪽 모두 영혼 내부 세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양쪽 모두 영적 현실을 구체화시키고 선악을 구체적인 용어로 제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좋은 환상은 상상력을 고양시키고 훈련시키며 독자에게 선의 아름

다음과 악의 추악함을 일깨워준다. 톨킨은 ‘판타지’ 문학이 어떻게 회복감(우리에게 실존을 에덴에서와 같은 경이감을 갖고 보게 해 준다)과 위안감(해피엔딩을 통한 완전함과 화해의 경험)과 도피감(현대 생활의 편협한 물질주의를 초월하게 한다)을 제공해 주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좋은 ‘판타지’ 문학은 장대함과 의미가 담긴 우주를 그린다. 선과 악은 절대 도덕의 문제이다. 미덕의 원칙은 엄격하며 벽차지만, 광채로 번쩍인다. 악은 추악하게 그려진다. 독자의 도덕적 감수성이 예리해지고 영적 진실은 두드러진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판타지’ 문학에 매력을 느꼈다. ‘판타지’ 문학의 위대한 선구자들 스펜서, 번연, 스위프트, 맥도날드, 톨킨, 루이스 등은 모두 신앙심 깊은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오늘날 환상 문학 작가와 열렬한 독자들도 다수가 그렇다. 반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판타지’같은 비사실주의 문학을 비난한다. 성경이 마법이나 주문을 부리는 모든 기술과, 이와 관련된 모든 신앙행위들, 즉 ‘신비주의’에 대하여 분명히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타지’ 문학을 비평하는 사람들조차도 ‘판타지’ 문학이 존 번연이나 C. S. 루이스에게 기독교 신앙을 탐구하고 선포하는 수단으로 쓰인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판타지’(문학 또는 영화)를 수용해야 하는가?

먼저 ‘판타지’ 문학은 ‘판타지’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판타지’ 문학은 권선징악과 같은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지만 그것을 펼쳐 나가는 무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상상의 세계이다. 이러한 색다른 시도를 통해 신선한 충격을 유도한다는 것이 판타지 문학의 특징이다. 성공적인 판타지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작가는 그의 상상력을 총 동원하여 우리의 익숙한 세계와는 아주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동물들이 이야기를 하고 나무가 생각을 하고 움직여 다니기도 한다.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요술을 부린다. 등장 인물들은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다. 이상한 괴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한 사회단위를 이루고 교류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문학을 글로 또는 영상으로 대하는 독자나 시청자는 “정말 저런 세상이 존재할까?”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다. 어린아이들도 어떠한 것을 사실로 ‘믿는 것’과 ‘믿게끔 보이게 하는 것’의 차이를 안다. 현실과 상상을 혼동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상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건전한 사회, 건전한 신앙을 기본으로 할 때 ‘판타지’를 접함으로써 영적 세계에 대한 혼동이 온다고 하는 것은 ‘판타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일 것이다. 혹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영의 세계를 의도적으로 모방하여 어떠한 영적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판타지’가 아니다. 이것은 신앙고백을 기초로 한 실제적 영의 세계를 묘사한 사실문학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묘사하는 세계를 불건전한 세계로 보고 영적 전쟁을 논한다든지 『반지의 제왕』에서 보여지는 어두운 분위기를 사탄적이라고 평하고 ‘중간계’는 가톨릭적 개념이라고 배척한다면 이것은 문학 장르를 무시한 잘못된 신학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판타지적 묘사나 표현에 ‘판타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많은 독자를 가진 ‘판타지’가 내용면에서 좋은 문학이 될 수 있음을 살피는 것이다. 좋은 문학이 독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좋은 문학은 독자의 사고력을 늘리며 바른 삶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고 마음을 풍성하게 한다. 문학을 통하여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 통찰이다. 좋은 문학은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다. ‘판타지’도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소유하고 있는 장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판타지’는 어떠한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 과장된 표현을 쉽게 소화 할 수 있기에 풍자 효과를 사실문학 보다 몇 배나 증가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악의 모습을 외모에서부터 노골적으로 표출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판타지’는 인물 표현 자체가 아주 의도적이다. ‘판타지’에 나오는 인물들은 보편적으로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 저들의 내면 성품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다. 톨킨의 창작한 등장 인물인 호빗은 욕심이 없는, 규율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우면서도 평화로운 존재들이다. 저들의 얼굴은 잘 생겼다가 보다는 선하다고 표현되어 있고, 저들의 입은 웃음과 음식을 즐기기에 알맞게 생겼다고 표현되어 있다. 저들은 새로운 사실보다는 익숙한 것이라도 반복해서 듣는 즐거움을 아는 존재들이다. 저들의 모습과 습관만 보아도 우리는 그들의 속내용을 훤히 드러다 볼 수 있다. 이것이 ‘판타지’의 미묘이다. 우리는 판타지 속에 드러난 인물들 속에서 쉽게 우리의 모습들을 적어도 단면적으로나마 발견하게 된다. 저들 속에 드러난 악을 미워하는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성향들에 대하여 씩씩한 미소를 짓는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동경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기가 솟아나는 것과 마음이 뿌듯해 움을 느낀다. 또 보편적으로 판타지 속에는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적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실제적 삶 속에 경험하는 복잡성을 잠시나마 떠나 흑백의 뚜렷한 구분의 평안함을 맛보게 된다. 변명과 해명의 늪을 빠져 나와 누군가의 편에 서서 같이 아파하고, 애처로와 하며, 슬픔과 기쁨의 나눈다. 사랑하고 배반당하고 용서하는 감정 속으로 부담 없이 빨려 들어간다.

보편적으로 ‘판타지’의 줄거리는 문학의 ‘모티프’의 하나인 모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떠한 모험 속으로 자의 또는 타의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 목적을 이룬다. 모든 좋은 이야기는 구속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 어떠한 문제를 당면하고, 그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이 희박할 때 어디에서 인가부터 또는 누군가로부터 구원이 온다. 이러한 구원의 순간에 주인공은 힘을 얻고 악을 대적하여 승리한다. ‘판타지’에 나오는 모험담 속에 일종의 구속을 경험할 수가 있다. 기독교 문학 연구자인 라이컨은 『나니아 연대기』를 쓴 C. S. 루이스의 판타지에는 뚜렷한 구원관이 있다고 말한다. 그 안에는 대속적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 왕의 임재가 있고 소명의 부여가 있다. 루이스의 주인공들은 어린아이들이다. 저들은 스스로 지닐 수 없는 힘이 누군가부터 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들은 그 힘의 근원이 ‘아슬란’(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루이스는 그의 ‘판타지’를 통하여 기독교적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독자들에게 던질 수 있다는 기쁨을 누렸다. 물론 이러한 ‘판타지’ 자체가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 섬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야기에 익숙한 아이 또는 어른들이 언젠가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접하게 되면 이미 어디선가 들었던, 믿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익숙함을 지니게 된다고 판단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니아 연대기』를 읽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차후에 “나는 루이스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은 꾸민 말이 아니다. 우리는 판타지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서 주인공과 함께 모험을 즐기게 된다. 짧은 시간 내에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고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의 해결은 그것을 피해 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사태를 반전시키는 것이다. 톨킨은 이 과정을 “좋은 이변”(eucatastrophe)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 “좋은 이변”은 그리스도 사건이었다고 증거했다. 이러한 톨킨의 증거가 고대 신화에 심취해 있던 33세의 루이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이해 시켰다. 좋은 신화 속에 나타난 좋은 이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상상의 세계에 머문 신화가 아니고 신화적 이야기가 사실로 역사 속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라

고 믿게 되었다. 이런 “좋은 이번”의 그림자들이 수없이 많은 문학 속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을 다룰 때 우리는 “그리스도적 인물”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타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험적 유익함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판타지’는 우리 마음에 경이로움과 환희를 준다. 이것은 지각적 이해와 구분될 수 있는 경험적 이해이다. 이것은 ‘분석적 이해’가 아니고 ‘참여적 이해’이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분석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참여하는 것이다. 루이스는 “현실에는 참여해야 하고 진리는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과 진리는 깊은 관계가 있다. 진리는 곧 현실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그러나 설명만 가지고는 안된다. 진리가 설명하고 있는 유기적인 현실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한다. 구원은 단순히 칭의와 성화에 대한 교리적 이해만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고백적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경험이다. 이 경험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으로 이어진다. 경험은 바른 설명으로 검증되어야 하고 진리는 삶과 내적 현실로 검증되어야 한다. 루이스는 좋은 판타지를 통하여 경험적 측면에서의 풍성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앙인이 되기 이전, 지적 방황기에 만났던 조지 맥도날드의 『판타스테스』(Phantastes)라는 판타지 소설을 통하여 신앙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을 디뎠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는 이 장면을 그의 “상상력이 세례를 받는 순간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그가 처음으로 “선한 죽음”을 경험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희열’(joy)의 경험과 연결된다. 루이스는 이러한 희열의 경험을 잘 쓰여진 ‘판타지’ 속에서 만날 수 있다고 믿었다. 판타지 안에 드러나는 이야기의 해결점을 통하여 우리는 ‘희열’을 맞본다. 주인공의 승리, 참된 자기 모습의 발견을 통하여 극적인 결과를 누린다. 결국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 너무 쉬운 낙관이나 침울한 회의로 일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진지함과 심각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결국 다가올 결말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좋은 판타지는 결국 삶의 교훈이다. 그러나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경험이다.

‘환상’없이 사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엘리야의 말년은 환상없는 시대였으며, 영적 상상력이 고갈된 시대였다. 그리고 그 시대는 믿음없는 시대였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이미지 부재의 시대였으며, 하나님이 이뤄주실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는 시대였다. 그 얼마나 비극적인 시대였는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지능지수’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영적 상상력이다. 이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리고 미래를 본다.

그리스도인들은 허구를 외부 세계와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주제적·상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판타지’문학은 실제의 인간 경험을 해석해 주며 도덕적·영적 진리를 상징하는 이상화된 본보기들을 제시한다. ‘판타지’문학의 상상력의 결과가 성경적인 상상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판타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메시지 전달을 위해 사용된 표현들에 얽매이기보다, 작가의 의도나 혹은 작품의 의미 파악에 주력하면서 먼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인지 추구하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 후 이것과 성경과의 연관성을 기독교세계관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후 비록 표현의 적합성을 문제 삼는다 해도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작품의 성격이나 작가의 기호,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나 언어의 한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받은 『해리포터』 시리즈

즈는 ‘한계상황 속에서 적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며,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승리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다.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작품은 한결같이 우정과 책임 및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선과 악의 대결 구도 속에서 정의에 대한 감각도 잃지 않고 있다. 마법은 어린이들이 꿈꾸었던 세계를 보여 주기 위한 수단일 뿐,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역설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어른들이 잊고 있는 아이들만의 세계를 통해서, 다시 말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 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표현된 것들이 비록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발휘하여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 물론 상상력을 남용한 사례가 없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측면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다.

최근에 다양한 소재를 갖고 집필되는 판타지 혹은 픽션 형태의 서적이거나, 이것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영화는 영상세대들을 위한 이야기의 한 변형일 뿐이다. ‘판타지’라는 장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로 보고,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이해하고 또 성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판타지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대답을 줄 수 있다. 마법에 대해 질문하는 이들에게 현실과 상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판타지’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가 아닌 상상의 세계로 현실에 대한 또 다른 거울일 수 있음을 말해 줄 수 있다. 또한 마법과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자연주의는 기적을 부인하지만, 기독교는 기적이 가능함을 가르치며,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실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동시에 악한 영적 세력이 존재하며, 이 세력과 이들의 힘을 입은 자들도 이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 던져 뱀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악한 영들의 마술 사이에 내재하는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다르고, 그 능력의 정도가 어떻게 다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한다면, 복음의 메시지에 보다 더 가깝게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판타지’ 문학은 골레로부터 벗어나고, 위안이 되고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상상하게 하는 문학이다. 흔히 ‘판타지’ 하면 관념적이고 현실 도피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형식의 옷을 달리 입었을 뿐 속 알맹이는 삶이 들어있는 문학, 삶에서 나와 삶으로 돌아가는 문학인 것이다. ‘판타지’ 문학은 그 주제에서 외부 현실보다는 내적 상상력을 이용한다. ‘판타지’ 문학의 가치 중 하나는 우리의 경험과는 아주 동떨어진, 완전히 급진적인 그 허구성이다.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판타지’ 문학이라는 등불은 책 바깥의 세상에 빛을 던져 줄 수 있다.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주입해 그들의 상상의 세계를 파괴할 필요가 없듯이 ‘판타지’ 문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굳이 피할 이유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일상에 갇혀 구태의연함으로 함몰되어 가며 현실의 논리에 갇혀 상상의 승리를 잃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판타지’ 문학은 작가들의 상상력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삶의 시야와 영역을 확장하고 현실의 복잡한 갈등에서 위로받기 위하여 좋은 ‘판타지’ 문학을 발굴하고 이러한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